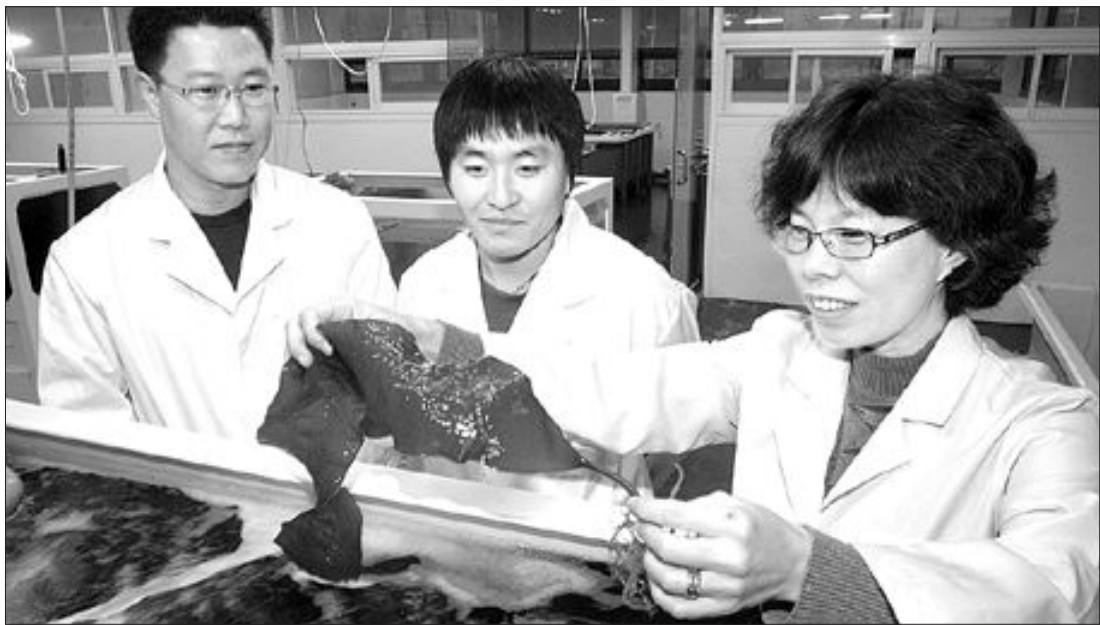


[사회]

도전 2008, 다시 쓰는 희망 일기

② '곰피' 세계 첫 양식 성공 남해수산연구 황은경 박사팀



황은경(오른쪽) 박사 연구팀이 연구실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양식에 성공한 다년생 갈조류 '곰피'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인한주기자 ahj@kwangju.co.kr

“해조류 여름 생산 가능하게 양식 매뉴얼 꼭 완성하겠다”

“어민들 소득 증대 도움되도록 보급할 것”

이름도 생소한 다년생 해조류 '곰피'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목포에 위치한 국립수산물연구원 남해수산연구소 해조류연구센터(센터장 백재민) 황은경(여·39) 박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새해에는 곰피의 인공양식 매뉴얼을 완성해 어민들의 실제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황 박사가 '도전'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 국내 유일의 해조류 연구기관 연구원으로 어린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곰피' 양식법을 보급하는 과제가 남는 것이다.

황 박사팀이 '곰피' 양식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은 2년여 전. 한국에서는 김·미역·다시마가 해조류 양식의 90% 이상을 차지하지만 모두 늦가을에서 늦봄까지 저수온에서만 생산이 가능하다. 양식 어민들에게 고수온인 여름철은 일손을 놓아야 하는 하한기이다.

“곰피”는 식용으로도 인기가 높지만 전복의 먹이로도 이용된다. '곰피'는 여름철에는 생산되지 않는 미역과 다시마를 대체해 전복 양식 어민들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연구 과정에 난관도 적지 않았다. '곰피'는 통해 일부 지역에서만 자생한다고 알려져 연구 초기 필요의약품 업체와 협력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

원, 남해를 살살이 뒤진 끝에 2005년 10월 여수 화태도 앞바다에서 '곰피'의 대량 자연 서식지를 발견하는 개가를 올렸다.

황 박사는 “곰피에 대한 연구가 마무리되면 오는 6월 아일랜드에서 열리는 국제응용해조류학회에서 열리는 국제응용해조류학회에 논문을 발표해 국제적 평가를 받으려 한다”며 “연구의 최종 목표는 '어민들의 소득창출'이지만 한국이 해조류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그 명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이트는 지난 12월 18~31

일 새해소망을 네 글자로 표현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누리꾼 1천 60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들 중 250여명이 '로또당첨', '로또1등'이라고 답했다. 또 230여명이 '가족건강'을 꼽았다.

누리꾼 120여명은 '취업성공'이라고 답해 최근의 취업난을 반영했다.

이 사이트는 지난 12월 18~31

▲곰피=다시마목 미역과의 다년생 해조. 무기질을 풍부히 함유하고 있으며 삶이나 무침 등에 많이 사용된다. 무기질이 풍부하며, 추출물은 구강청결제나 화장품으로 이용된다. 최근에는 노화억제물로도 발견됐다.

황 박사는 “곰피에 대한 연구가 마무리되면 오는 6월 아일랜드에서 열리는 국제응용해조류학회에서 열리는 국제응용해조류학회에 논문을 발표해 국제적 평가를 받으려 한다”며 “연구의 최종 목표는 '어민들의 소득창출'이지만 한국이 해조류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그 명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이트는 지난 12월 18~31

일 새해소망을 네 글자로 표현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누리꾼 1천 60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들 중 250여명이 '로또당첨', '로또1등'이라고 답했다. 또 230여명이 '가족건강'을 꼽았다.

누리꾼 120여명은 '취업성공'이라고 답해 최근의 취업난을 반영했다.

이 사이트는 지난 12월 18~31

서울대 수시, 광주서 82명 합격

올 수도권 대학 785명... 지난해보다 32% 늘어

2008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전형에서 광주 출신 수험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대해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교육청은 1일 올해 수시에서 광주 출신 서울대 합격자가 82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61명보다 34.4% 늘었다고 밝혔다. 연세대와 고려대에도 각각 64명, 39명이 합격한 것으로 조사돼 지난해 33명(97% 상승), 34명(14.7% 상승)보다 많아졌다.

이 밖에 ▲한양대 47명(2007년 25명·88% 상승) ▲성균관대 83명(2007년 24명·245.8% 상승) ▲중앙대 28명(2007년 17명·52.9% 상승) ▲기타 407명(2007년 367명·10.9% 상승) 등 수시 모집에서 수도권 대학에 합격한 학생은 모두 785명(2007년 594명·32.2% 상승)이었다.

또 서울대가 발표한 지역별 서울대 수시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광주 출신 수는 전체 응시자 대비 합격자 비율이 1.5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1.52란 수치는 수능 전체응시자 중 광주 출신 수험생이 차지하는 비율(3.1%) 보다 1.52배 많은 수가 서울대 수시에 합격했다는 의미다.

서울대 수시에서 58명이 합격한 전

대학	2007	2008
서울대	61	82
연세대	33	64
고려대	34	39
한양대	25	47
성대	24	83
중앙대	17	28
이화대	33	36
기타	367	407
계	594	785

(자료:광주시교육청)

남 역시 수치가 1.22로 전국 3위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은 1.12, 부산 1.13, 대구는 0.98을 나타냈다.

광주 지역을 전형별로 나누면 지역균형선발 전형이 42명, 특기자 전형이 40명이었고, 학교별로는 광주과학고 9명, 송일고·대성여고 5명, 금호고·국제고·설원여고 4명 등 34개 고교에서 1명 이상의 합격자를 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진학담당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학교별 응시 인원 제한이 없는 특기자 전형형을 공략하는 등 발빠르게 입시전략을 짰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평가원 연구원들도 수능 난맥상 지적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소속 연구원들이 우리나라 수능 시스템의 전반적 난맥상을 지적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수능 등급제가 미흡한 제도 주체간 숙의와 사전 준비에 애초의 추진방향이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평가원 학술지원 '교육과정평가연구' 최근호에 따르면 평가원 소속 선임연구위원 양길석씨 등 4명은 '대학입학시험 점수체계 국외 사례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등급제 시행으로 일었던 혼란이 “시험의 문항 수 및 응시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

행체제는 그대로 돈 채 점수체제를 바꿨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며 “수능의 성격과 기능을 재검토하고 그에 따라 시험·점수체제를 재구안할 필요가 있다”고 썼다.

연구진은 “수능 등급제는 수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학생부 성적에 강화함으로써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대입제도의 핵심 주체인 정부, 고교(학부모 포함), 대학간의 숙의와 사전 준비가 충실히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누리꾼들 새해 소망 로또 당첨·가족 건강

1일 포털사이트 야후코리아의 블로그 사이트에는 신년 새해 소망에 대한 이벤트 진행 결과가 공개됐다.

이 사이트는 지난 12월 18~31

일 새해소망을 네 글자로 표현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누리꾼 1천 60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들 중 250여명이 '로또당첨', '로또1등'이라고 답했다. 또 230여명이 '가족건강'을 꼽았다.

누리꾼 120여명은 '취업성공'이라고 답해 최근의 취업난을 반영했다.

이 사이트는 지난 12월 18~31

약해지는 눈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오전까지 눈이 내리겠다.

광주	구름많고 한때 눈	-4~4℃
목포	구름많고 한때 눈	-2~4℃
여수	맑음	-3~5℃
순천	맑음	-2~4℃
해남	맑음	-6~4℃
남원	맑음	-3~4℃
홍성	맑음	-4~4℃
진안	맑음	-3~6℃
완주	맑음	-6~4℃
고흥	구름많고 한때 눈	-4~4℃
진도	구름많고 한때 눈	-2~4℃
남원	구름많고 한때 눈	-6~2℃
전주	구름많고 한때 눈	-10~2℃
속초	구름많고 한때 눈	0~4℃

서울대 수시 합격자 82명

수도권 대학 785명

지난해보다 32% 늘어

1월 2일

(음 11월 24일)

◇주간날씨

서울대 수시 합격자 82명

수도권 대학 785명

지난해보다 32% 늘어

서울대 수시 합격자 82명

수도권 대학 785명

지난해보다 32% 늘어

서울대 수시 합격자 82명

수도권 대학 785명

지난해보다 32% 늘어

광주 환경시설공단 입찰 서틀고 상수도본부·도시철도공 돈 낭비

광주시에 최근 환경시설공단과 도시철도공사, 상수도사업본부 등 산하 공기업 및 사업소 3곳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모두 83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해 시정·주의 조치했다.

환경시설공단은 38건, 상수도본부 24건, 도시철도공사는 21건을 지적받았으며 사업비 9천200여만원의 감액 또는 회수 조치됐다.

환경시설공단은 출범 5년이 넘었으나 행정·인사·예산·회계·재정관리 분야에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종합설비시설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기술인력 확보와 기술축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계약분야에서는 하수처리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감축 및 단가인상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비롯 ▲공사 제한경쟁입찰에 따른 실적

제한 부적정 ▲중복·과다 제한 등 입찰 방법 부적정 등이, 세입·재산관리 분야에선 ▲제1하수처리장내 유실수 관리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상수도본부는 조정 공사비가 58%에 달하는 내복천 수질정화 습지공사를 토목공사로 제한, 결국 조정공사를 무자격 업체가 시행하는 등 사업 발주를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고, 용연계통 송수관로 시설공사와 동복수원지 상류 환경기초시설사업 등에서 공사비 과다 계산 등이 적발됐다.

도시철도공사는 매년 500여억원의 경영적자 개선을 위한 승객 확대 및 첨단광고 개발 등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증대 노력이 부족하고, 반복적인 외부 용역에 따른 예산낭비와 불합리한 계약 승인제 운영, 과다한 근무승진 등이 지적됐다. /정후식기자 who@

공사 소송에 한우 육질 저하 "시공사가 배상해야"

공사 소송 때문에 한우(韓牛)의 육질이 떨어지는 피해를 봤다면 시공사 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일 한우 농가 주변에서 도로공사를 해 한우에 소송 피해를 발생시킨 시공사 S건설과 하청업체에 대해 한우의 주

인인 박모씨에게 4천173만8천원을 배상하라는 재정 결정을 내렸다.

경북 김천시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박모씨는 축사 주변에서 S건설과 하청업체가 진행한 공사 중 소송이 발생해 한우의 임신 능력이 떨어지고 성장 지연과 육질 저하 등의 피해를 봤다며 작년 2월 S건설에 대해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 /연합뉴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릴 적, 배가 아플 때, 엄마 손은 복통약이었고,
머리 아플 때는 두통약이었고 해열제였습니다.
아플 때마다 사랑으로 낮게 하는 엄마의 손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깃든 약손처럼,
사랑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됩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

비타민 A, C, E의 보충
-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
- 피부 노화 방지, 노년기
- 눈의 건조감 완화, 야맹증
- 심장 질환 등 여러 만성 질환
- 미용, 피부 노화, 피부, 잇몸, 비염
- 뇌졸중 예방 및 병기시 다른
중성 지방, 콜레스테롤, 수축기 혈압, 수축기 혈압, 아연의 보충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www.koteny.com
080-022-2200